## 동부그룹 동부익스프레스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경영지원

1.자신이 가진 열정을 발휘하여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을 기술하십시오[0/1200] 1200Byte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식인종과도 친구될 놈, 작은 조직내 변화를 시도하다>

전 붕괴되어 가는 동아리의 결속력을 회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식인종 마을 떨어져도 식인종이랑 친구될 녀석." 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친화력 좋은 저는 7기 기장, 회장을 맡았습니다. 시간이지나고, 동아리 내에서 나이차가 커지면서 알게 모르게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한 기수가 아래 1,2기수까지 챙기는 식이었으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무순환 식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기로 생각했고, 선후배들과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며 IT부, 역사부, 총무부 등으로인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인들의 업무를 명확히 해주고 직접 해나가면서 참여도를 높였으며, 후배들의 적극적인 발언 및 반영 노력 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형 정말 고생 많았어요. 분위기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1:29:300의 법칙<mark>)처럼</mark> 문제가 작은 상태일 때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2.본인의 지원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강점/약점을 기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하십시오. [1200Byte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회계학과 함께한 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하지만 후회 없이 산 기간은 회계사 시험에 도전한 기간입니다. 경제학,경영학을 복수전공 하며, 회계학까지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열심히 한 덕에 고시반 장학금 등 2회의 장학금도 받았고 회계학점은 모두 만족할만큼 받을 수있었습니다..

회계사 공부를 하던 때만큼 종일 공부하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감을 유지하기 위해 틈틈이 계속 책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등은 빠른 복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세법 등은 손을 놓은지 조금 되었고,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공채의 신으로 돌아온 대세, 인크루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자료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같습니다. 세법 업무를 하게 된다면 회계사 공부를 하던 때처럼 입사 전에 복구를 하도록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인사관리의 경우는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회계나 경제학이랑 다르게 손에 딱 와닿는 느낌이 들 지는 않았습니다. 인사관리 교수님께 상담을 했더니, 실무를 겸하면서 공부하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누구나 이론만으로는 그렇게 느낀다고 격려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담당 업무를 하 게 된다면 실무를 하면서 대학원 진학이나 다른 자기계발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3.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입사 후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기술하십시오 [1200Byte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할 일이 많다는 것은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이다 >

한.미,한.칠레FTA등에 이어 얼마 전엔 한국.캐나다간의 FTA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BRICS에 이 어 VISTA국가의 잠재적인 성장도 뉴여겨보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성장가능성도 높고, 이 말을 뒤 ncruit 집어 말하면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세 : 진솔함, 그리고 감동>

매사 진솔되게 일을 하겠습니다. 매사 솔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함께 저의 업무를 넘어, 남들 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언제나 크게 생각하고, 현안업무를 넘 어 그 이후까지 준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상급자에게는 어떤 일을 시켜도 반드시 해내는 책임감 있는 부하, 동료들에겐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제 좌우명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입니다. 바쁘고 할 일이 많겠지만, 이는 반대로 말하면 다 양한 업무를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의 일은 내 일이 아니다! 가 아 닌, 내 일은 기본이고 더 할 일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항상 임하겠습니다. 동부익스프레스가 세계 최고가 되는 날까지 함께 뛰고 싶습니다.